

Marcia의 청소년 자아정체성 발달 모형에 따른 가톨릭 청년의 종교적 자아정체성과 종교성 관계 연구*

김 동 기

강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Marcia의 모형에 따른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발달을 고찰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청년기에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연령과 더불어 발달해감에 따라 유예나 성취 상태는 증가하고, 혼미나 유실 상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둘째,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은 내재적 종교정향, 외재적 종교정향, 추구적 종교정향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셋째,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은 신앙성숙 가운데 수직적 주제, 수평적 주제, 일반적 주제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가톨릭 청년(1,872명)이며 5개 집단으로 나누어 발달 경향을 검증하였다. 조사도구는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 측정 문항, 종교정향 척도, 신앙성숙 척도 등이다. 주요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첫째, Marcia의 자아정체성 상태를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로 대체하여 척도화한 네 가지의 정체성 상태 가운데 유예와 성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유실과 혼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Allport의 종교정향에서 외재적 정향보다 내재적 정향에서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의미 있는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Batson의 내적 정향이 외적 정향보다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신앙성숙 정도 차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수직적 주제를 지향하는 사람이 수평적 주제를 지향하는 사람보다 더 뚜렷한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Marcia의 자아정체성 상태 분류, Erikson의 정체성 발달, 종교적 자아정체성, 종교정향 척도, 신앙성숙 척도

* 이 논문은 2011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청소년 자아정체성 발달에 대한 연구는 Erikson(1968)의 이론에 의해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는 심리적 안녕감 감각으로서의 정체성의 적절한 의식에 대해 설명하였고, 신체에 대한 편안한 감정, 청소년 자신의 존재의식의 감정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다.¹⁾ 또 그에 의하면, 자아정체성 형성은 어렵고 불안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이 어려운 단계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은 자신감의 감정과 확신으로 성인기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아정체성 성취를 실패하는 사람은 역할 혼미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즉,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불확실성 상태에 처하게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미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자아정체성을 획득함으로써 충실(fidelity)의 덕행이나 강점이 발달하게 된다. Erikson은 가치체계에서 충실 개념은 완벽한 설명에 대한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 유지를 보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

이와 같은 Erikson의 이론에서 통찰된 청소년 자아정체성 주제에 대한 관심은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특별한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들은 집단의 의식, 관습,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청소년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그들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발달 이론을 확장하여 등장한, “Marcia의 자아정체성 상태 패러다임(1980)”은 분명히 실증 연구를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접근이었다. Marcia는 Erikson의 정체성 구조를 위기(crisis)와 헌신(commitment)의 두 차원으로 조작하였다. 이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하여 네 개의 정체성 상태를 생성시켰다. 즉, 혼미(diffusion, 위기 극복의 탐색이 없고 지속적인 헌신이 없는 사람), 유실 foreclosure, 위기 극복의 탐색은 없지만, 권위에 의해 나타나는 특정 정체성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 유예(moratorium, 위기 극복의 탐색을 계속하지만 지속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 성취(achievement, 위기 극복의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자기 선택으로 헌신을 하는 사람) 등이다.³⁾

Marcia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Fulton(1997)의 주장에 의하면, 네 개의 정체성 상태를 위기와 헌신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다. 즉, 첫째, 개인이 대안적 탐색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둘째, 개인이 특정 정체성을 추구하

1) Markstrom-Adams, C., & Smith, M., “Identity Formation and Religious Orient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ournal of Adolescence*, 19, 1996, pp.247-261.

2) Sanders, J. L., “Religious Ego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Faith Matur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6), 1998, pp.653-658.

3) Bilsker, D., & Marcia, J. E., “Adaptive Regression and Ego Identity”, *Journal of Adolescence*, 14(1), 1991, pp.75-84. ▶ 정체성 상태 네 가지에 대한 우리말은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 foreclosure), 혼미(diffusion) 등으로 국내 심리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그대로 번역하였다.

기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경우이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위기와 헌신의 증거를 근거로 하여 발생하는 “Marcia의 정체성 상태 분류”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표 1> Marcia의 정체성 상태 분류

위 기	헌 신	
	특정 정체성 추구하기 위해 헌신함	특정 정체성 추구하기 위해 헌신 안함
대안적 탐색에서 위기 경험함	성취: 확실하고 변함없는 자아를 찾게 되었고, 타인의 견해를 고려했으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한다. 직업, 성역할, 삶의 목표에 대한 신념 또는 그 밖의 것에 헌신한다.	유예: 현재 정체감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뚜렷한 정체감이 없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엇인가에 확실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적 탐색에서 위기 경험 못함	유실: 스스로 삶을 구성하는 과정이 결여되어, 의문이나 고민 없이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체감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다. 삶의 의미가 결여된 직업이나 이데올로기에 전념한다.	혼미: 자기 의지의 방향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치적, 도덕적, 직업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왜 하는지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일을 해도 왜 하는지 모른다.

Erikson과 Marcia는 건강한 청소년은 정체감 성취를 추구하면서 아직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정체감 유예의 시기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은 일시적인 결정이 실패하더라도 사회의 포용으로 그 책임을 한번 짊 모면(유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 선택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상태들은 성숙의 위계적 순위에 의해서 정렬되는 것으로 보았다. 성취는 가장 성숙된 상태로서 청소년 정체성 위기의 건강한 해결을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유실과 혼미는 억제되고 비교적 미성숙 단계에 있고, 성숙 이전의 헌신이나 각각의 탐색이 늦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체성 발달로 사춘기가 끝날 때 까지 1/5 정도의 고등학교 학생만이 정체감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였다(Archer, 1982).⁵⁾

Hood 등(2009)은 정체성 출현에서 이러한 유실과 혼미의 상태는 가장 미성숙함을 보이고 있지만 점진적 발달 과정인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즉, 종교적 영역에서 청소년 정체성 발달과 관련된 증명을 모색하였다. 혼미 상태의 젊은이들은 종교적 탐색이 거의 없거나 확실한 종교적 헌신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로서 신앙적인 정체성 발달 측면에서도 비교적 미성숙 상태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 가운데 자신이 종교문제와 갈등의 탐색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고, 특정 종교의 관념을 수용하게 된 청소년은 더욱 성

4) Fulton, A. S., “Identity Status,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Vol. 26, No. 1, 1997, pp.1-11.

5) Archer, S. L., “The Lower Age Boundaries of Ident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6), 1982, pp.1551-1556.

숙된 성취 정체성 상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⁶⁾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종교와 정체성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의 개념적 골격은 Marcia의 자아정체성 형성 모형을 응용하여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신앙발달, 종교성(종교정향, 종교성숙) 등과 관련된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종교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아정체성 발달 연구는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이론 자체에 뿌리가 있다. Erikson의 이론 자체가 서구사회의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발달의 모델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는 청소년기의 안정적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에 “Youth: Fidelity and diversity”라는 논문에서 종교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실존적 주제, 사회와의 관련성, 신앙적 의식과 예식을 거쳐서 소속감을 가지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정체성과 역할 혼미 갈등의 해결은 Erikson 이론의 충실 덕목 즉, 이념적 세계관에 헌신하는 덕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는 전형적으로 교회 같은 종교적(이념적) 기관을 통하여 세계관과 충실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와 같이 Erikson(1968)이 정체성 형성에 대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개념화되고 측정된 정체성 상태의 관념적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종교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관련된 정체성 상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 문헌의 출판은 거의 없었다. Markstrom-Adams, Hofstra, & Dougher(1994)의 연구가 약간 유용한 것 중의 하나인데, 이 연구에서 모르몬교 신도들의 교회 출석 빈도가 대인 간 유실 및 관념적 성취와의 관계에서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낮은 빈도의 교회출석은 관념적 혼미와 유예와의 관계에서 상관성이 있었다.⁸⁾ 이들 정체성 상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정체성 형성과 그와 관련된 성격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풍부한 연구들에 의해서 확산되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정체성과 종교성 구조 간의 관계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미진한 발전에서, Erikson(1964, 1965)이 관념적 정체성의 특출한 구성요소로서 종교를 확인한 것과 관련지어 본다면 의미 있는 것이다. Erikson은 종교가 젊은이들에게 복잡한 실존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종교는 개인의 역사를 사회적 역사와 연관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에서의 목적과 중요한 감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에서 의식, 전례, 믿음, 신앙교리 등의 사용은 소속감의 느

6) Hood, Jr. R. W., Hill, P. C., & Spilka, B.,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9), pp.109-139.

7) Hunsberger, B., Pratt, M., & Pancer, S. M.,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Religious Exploration and Commitment”,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4), 2001, pp.365-386.

8) Markstrom-Adams, C., Hofstra, G., & Dougher, L., “The Ego-Virtue of Fidelity: A Case for the Study of Relig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994, pp.453-469.

꿈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⁹⁾

심리학적 자아정체성 발달 연구에 중요한 관념을 제공한 Marcia의 정체성 위기와 헌신의 조작은 많은 연구를 자극해왔고, 청소년 발달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Hunsberger 등(2001)은 정체성과 종교 연결 연구는 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다음 연구들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¹⁰⁾ 즉, 종교가 정체성 출현에 여러 가지의 핵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더욱이 청소년기 종교성은 위험 부담이 있는 행동과 비행 줄이고, 건강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줄이는 것과 같은 정적 결과와 상관이 있었다. 보다 더 발전된 정체성 상태는 알코올 소비 절제, 물질 사용과 남용 절약 등과 같은 건강 이익 측면과 관련되어 왔다. 그러한 잠재적 이익을 고려해볼 때, 종교와 정체성 간의 연결이 보다 더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성취의 성공은 자아의 성숙으로 이끄는 충실의 덕행을 갖추게 되고, 성숙된 정체성으로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탐색은 종교적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정체성과 종교의 관련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rcia의 자아정체성 네 가지 상태에 따라 종교적 신앙발달 정체성 상태로 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처음에 종교적 자아정체성에 대한 척도를 제작한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 종교적 영역에서 위기와 헌신의 두 차원의 조작에 의해서, 성취 유예 유실 혼미 등의 네 가지 상태를 범주화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arcia의 모형에 따라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개인이 대안적 탐색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와 개인이 특정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경우에 대해 상호작용적 조작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종교와 각각의 네 가지 정체성 상태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혼미 : 자신이 종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자신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2. 유실 : 자신의 부모나 타인이 권하는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심각한 고민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종교라고 믿는다. 자신의 종교를 뚜렷하게 표방하지 못하고, 종교 외의 어떤 것에 더 전념을 한다.
3. 유예 : 자신에게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아직도 신앙 정체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종교에 대해 열심히 헌신을 못하고 있다.
4. 성취 :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 수많은 탐색을 했다. 마침내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자신의 종교에 열심히 헌신한다.

9) Markstrom-Adams, C., & Smith, M., 앞의 글, pp.247-261.

10) Hunsberger, B., Pratt, M., & Pancer, S. M., 앞의 글, pp.365-386.

앞서 밝힌 바와 같이, Marksstrom-Adams와 그의 동료들은 정체성 상태와 종교적 변인 간의 신뢰롭고 관심 끄는 상관관계가 발견되고 있음을 검증하였지만, 그것은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종교심리학 연구들의 문헌에서 보면, 심리학적 변인들로 인한 종교의 복잡성 때문에 오랫동안 그 기반을 닦는데 공을 들여왔다. Erikson의 이론적 통찰을 조작적으로 실증적으로 탐색하려는 정체성 패러다임이 출현함으로써, Allport의 연구에 의한 종교정향 패러다임에도 관심이 커졌다. Allport의 원래의 공식에는 내재적(intrinsic), 외재적(extrinsic) 정향이라는 두 개의 종교정향이 있었다. 내재적 정향을 가진 사람은 내면화된 그들의 종교를 생각하여,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

이 종교정향 패러다임을 Erikson 방식의 조망에서 본다면, 정체성과 관련된 종교성 연구에 대한 정당화는 근거가 있다. 특히, 초기의 Allport 이론 이후에 Allport와 Ross의 종교정향의 구조는 정체성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종교정향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동기가 중심이고, 종교성 정도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종교의 내재적 정향은 하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반영된 교의(creed 敎義)가 채택되고 내면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대조적으로, 외재적 정향의 개인은 흥미와 욕구의 담보를 반영하는 수단적이고 활용의 목적에 따라 자기-만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외재적 정향을 가진 사람은 종교를 자신의 야심에 치중하고, 내재적인 사람은 내면화된 교의에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Marcia의 자아정체성 상태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신앙성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사람은 앞에서 인용되었던 Sanders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아정체성과 신앙성숙 개념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의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Benson 등은 신앙성숙 척도(FMS, Faith Maturity Scale)를 개발하였다.¹³⁾ 신앙성숙 척도는 신앙적으로 성숙된 개인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친사회적 감정을 나타내고 자비와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간애에 봉사함을 강조하는 수평적 주제(horizontal themes)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약한 종교적 성숙보다는 자신과 초월적 존재 간의 상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수직적 주제(vertical themes)라는 것이다. 신앙 성숙에 연령의 영향이 있는가? 분명히 그렇다. 왜냐하면, Benson 등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신앙성숙 척도 점수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고, 20세에서 70세에 이르기까지는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 동안에 신앙성숙 척도 점수는 변화가 약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와 신앙성숙 간의 상

11) Fulton, A. S., 앞의 글, pp.1-11.

12) Markstrom-Adams, C., & Smith, M., 앞의 글, pp.247-261.

13) Benson, P. L., Donahue, M. J., & Erickson, J. A., "The Faith Maturity Sca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93, pp.1-26.

관성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¹⁴⁾

본 연구는 Erikson의 자아정체성 이론을 확장하여 네 가지 정체성 상태의 수준을 나타낸 Marcia의 모형을 이용하여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발달을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동시에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청소년들의 신앙발달, 종교정향, 신앙성숙 등과의 상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과연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연령과 더불어 발달해감에 따라 네 가지 정체성 상태 가운데 혼미나 유실 상태에서는 감소하고, 유예나 성취 상태에서는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종교정향 가운데 내재적 정향은 참 종교이고 성숙된 종교이지만 외재적 종교는 거짓 종교이고 미성숙 종교라는 Allport의 이론, 그리고 Batson의 내적, 외적, 추구적 종교정향을 사이에서 과연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상태들의 상호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종교적 신앙성숙 가운데 수직적 주제, 수평적 주제, 일반적 주제들 사이에서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상태들의 상호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혼미와 유실은 감소하고, 유예와 성취는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보일 것이다.
- 가설 2.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은 종교정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3.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은 신앙성숙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천주교 수원교구 청소년국의 프로젝트 「청년 신앙생활 의식조사(2010~2011)」에 참여한 청년들이었고, 설문조사 응답 자료의 일부를 허락받아 본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가톨릭 청년신자들로서 총 1,872명이었고, 그 중에 남자는 875명(46.74%) 여자는 997명(53.26%)이었다. 연령집단의 분포는 18~20세(201명), 21~24세(501명), 25~28세(612명), 29~32세(417명), 33~38세(1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대상자들은 연령으로 보서는 청소년(teenager)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본 연구대상

14) Sanders, J. L., 앞의 글, pp.654-655.

의 주류는 청년들이고, 발달연구자들이 흔히 adolescence를 청년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따르기로 한다.¹⁵⁾ 가톨릭에서는 대개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 응답한 대상자들은 현재 교회 내의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서 연령이 약간 넘어진 경우라도 모두의 응답을 자료화하기로 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용으로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은 측정 문항 및 척도들이다. 즉,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Religious Identity Status) 측정 문항,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s Scales), 신앙성숙 척도(Mature Faith Scales) 그리고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들이다.

1)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Religious Identity Status) 측정 문항 : 앞에서 Marcia의 모형에 따라 제작한 종교적 자아정체성의 네 가지 상태 분류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분류는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위기 차원(개인이 대안적 탐색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과 헌신 차원(개인이 특정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헌신을 하는 경우)을 상호작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 문항과 측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질문 문항: 당신은 “종교가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 판단해보다면 지금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2) 측정 점수: 정체성 상태에 따라 1~4점의 점수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4점 척도).

“나는 종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항은 1점(혼미 상태)을 부여함.

“내 부모가 가톨릭 신자이고, 그래서 나도 가톨릭 신자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은 2점(유실 상태)을 부여함.

“나에게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아직도 나의 신앙 정체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등의 문항은 3점(유예 상태)을 부여함.

“내 종교와 다른 종교에 대해 수많은 탐색을 했다. 나는 마침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등의 문항은 4점(성취 상태)을 부여함.

15) 송명자, 『발달심리학』(서울: 학지사, 2010), 330-331쪽. ▶ 본 연구에서의 연령집단은 편의상 Blos(1979)의 “청년기 2차 개체화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 단계”에 의해서 청년전기(preadolescence), 청년초기(early adolescence), 청년중기(adolescence proper), 청년후기(late adolescence), 후기 청년기(post adolescence) 등으로 나누었다.

2) 종교정향 척도(Religious Orientations Scales)¹⁶⁾: Batson 등이 개발한 척도(7분 척도)로서, 내적 척도(internal scale)는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며 자신의 모든 생활을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고 자신의 종교가 인생의 목적적 지향에 대한 측정이라고 하였다. 관련 문항을 예로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미사에 참례한다’ 등이다. 외적 척도(external scale)는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외재적 동기가 반영되는 외부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삶의 수단적 정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관련 문항을 예로 들면, ‘종교는 친교적 대인관계나 안정감에 대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등이다. 추구적 척도(quest scale)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측면을 가치롭게 생각하고 신앙에 의해 이타적 행동과 같은 바람직한 일을 지향하는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하였다. 관련 문항을 예로 들면, ‘나의 종교적인 의문과 불확실성은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등이다.

3) 신앙성숙 척도(Mature Faith Scales) : Benson 등(1993)에 의해서 개발된 척도로서, 신앙성숙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우선적이고, 힘차고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특성에 대한 지각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척도는 모두 38개의 문항들(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개인이 신앙성숙을 경험할 때, 생활에 변화를 주는 하느님과 관계를 의미하는 수직적 주제(vertical themes)의 12개 문항들, 타인에게 봉사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게 하는 수평적 주제(horizontal themes)의 12개 문항들, 그 외 일반 문항 14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척도는 신앙성숙 지표를 나타내는 8개의 핵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신뢰와 믿음, (2) 신앙 열매를 경험, (3) 신앙과 생활의 통합, (4) 영성적 성숙 추구, (5) 공동체 경험과 신앙교육, (6) 생활의 긍정적 가치관 소유, (7) 사회변화 추진, (8) 활동과 봉사 등이다.

4)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 문항 : 신앙적 성숙 노력, 교회출석, 신앙공동체 생활, 봉사 및 가난한 이웃돕기, 성경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사 방법 및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천주교 수원교구 청년 신앙생활 의식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자료의 일부를 승인받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가톨릭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총 1,872명의 청년들이었다. 설문조사는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수원교구 전체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최종 조사결과 보고는 2011년 1월에 이루어졌다. 연구가설의 검증 을 위해 척도 점수에 의한 발달 경향을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SAS 통계프로그램의 t검증 방식으로 변인들 간의 차이의 유의성을 고찰하였다.

16) 종교정향의 세 가지 척도에 대한 용어의 우리말 표현에서, Allport는 intrinsic(내재적), extrinsic(외재적) 정향이라고 하였고, Batson은 내적(internal), 외적(external), 추구적(quest) 정향이라고 하였다. 두 학자가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국내 심리학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번역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령에 따른 종교적 자아정체성의 상태별 발달 경향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혼미와 유실은 감소하고, 유예와 성취는 증가하는 발달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청년전기(18~20세), 청년초기(21~24세), 청년중기(25~28세), 청년후기(29~32세), 후기 청년기(33~38세) 등으로 나누어 발달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령집단 구분은 Blos(1979)가 주장한 자아의 적응체계 형성 이론의 “청년기 이차 개체화과정(secondary individuation process) 단계”¹⁷⁾에 따른 것이다.

〈표 2〉는 연령집단별로 성취, 유예, 유실, 혼미 등의 종교적 정체성 상태에 대한 응답을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 백분율에 의한 전체적인 경향은 성취와 유예에서 정체성이 상승하고 유실과 혼미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또한 성별 비교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는 유예이다. 반면에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것은 성취와 유실 상태이고, 1위인 유예 다음으로 높은 비율(2위)을 보이는 것은 남자는 성취이고 여자는 유실로 나타났다.

〈표 3〉은 남녀 청년들 모두 합친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경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상태별로는 유예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유실, 성취, 혼미의 순이다. 이런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래프에 의한 전체의 발달 경향을 보면, 네 가지의 정체성 상태 가운데 유예와 성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유실과 혼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결과는 과거 Meilman(1979)의 연구에서도 21세 전후의 청년들에서 일반적 관념의 정체성 성취와 유예가 뚜렷이 상승하고 정체성 상실과 혼미는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¹⁸⁾ 그리고 정체성 상태들의 출현에 관한 Jones 등의 연구¹⁹⁾에서와 같이 정적으로 상승하는 성취와 유예와는 달리, 혼미와 유실의 상태는 발달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과정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예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지만, 성취는 유예와 같이 진보를 나타내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성숙된 상태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Erikson의 주장과 같이 성취는

17) 위의 책, 331쪽.

18) 이신동, 최병연, 고영남, 『최신교육심리학』(서울: 학지사, 2011), 82-84쪽.

19) Jones, R. M., Akers, J. F., & White, J. M., “Revise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19, 1994, pp.247-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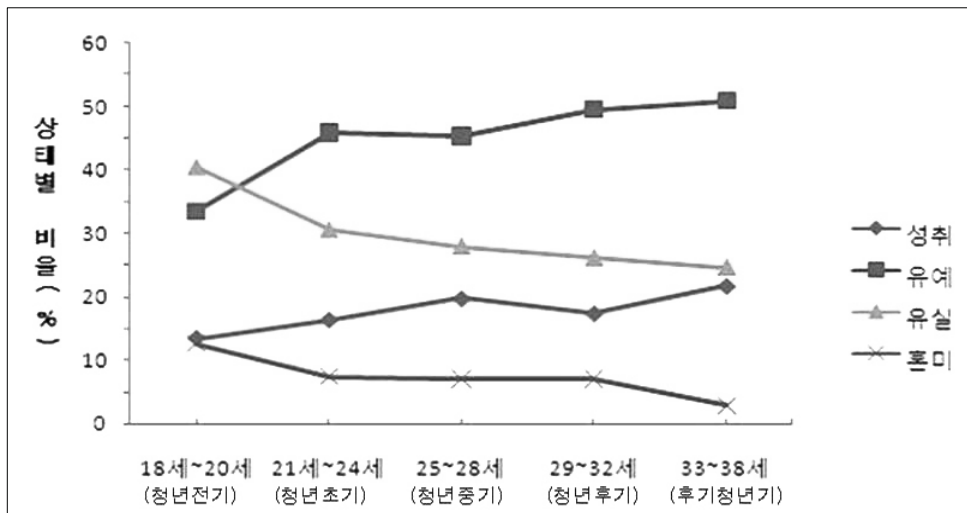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고 헌신하여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충실 같은 덕목을 갖추게 되었지만, 유예도 헌신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위기 극복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표 3>에서 성취와 유예의 비율을 합친 숫자는 60%를 넘어서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종의 연령집단에서는 72.5%라는 높은 비율의 발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Marcia 모형에 의한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별 비율(%)

연령 정체성	18~20세 (201명)			21~24세 (501명)			25~28세 (612명)			29~32세 (417명)			33~38세 (117명)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성취	12.9	13.9	13.4	20.9	11.7	16.3	25.0	14.5	19.7	16.3	18.3	17.3	26.7	16.7	21.7
유예	23.7	43.5	33.6	43.3	48.3	45.8	41.4	49.1	45.3	46.5	52.5	49.5	46.7	54.8	50.8
유실	48.4	32.4	40.4	29.3	31.7	30.5	25.4	30.4	27.9	27.9	24.3	26.1	25.3	23.8	24.6
혼미	15.0	10.2	12.6	6.5	8.3	7.4	8.2	6.0	7.1	9.3	4.9	7.1	1.3	4.8	2.9

<표 3> Marcia 모형에 의한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경향 (%)

연령 정체성	18~20세 (201명)	21~24세 (501명)	25~28세 (612명)	29~32세 (417명)	33~38세 (117명)
성취	13.4	16.3	19.7	17.3	21.7
유예	33.6	45.8	45.3	49.5	50.8
유실	40.4	30.5	27.9	26.1	24.6
혼미	12.6	7.4	7.1	7.1	2.9



<그림 1> Marcia의 모형에 의한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경향

2. 종교정향에 의한 종교적 자아정체성 차의 검증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에서 종교정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종교적 자아정체성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llport 등의 종교정향과 Batson 등의 종교정향 척도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표 4>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Allport의 내재적·외재적 정향 간의 t 값이 3.75(df=1025)로서 유의미한 차이($p<.001$ 수준)를 나타내었다. 즉, 청년들은 외재적 정향(평균 2.54)보다 내재적 정향(평균 2.73)에서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의미 있는 차이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Batson의 종교정향 경우에 내적 정향, 외적 정향, 추구적 정향 등의 3자 간의 차이 검증에서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 간의 t 값은 -4.98(df=1393)로서 유의미($p<.001$ 수준)하고, 내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의 t 값은 2.79(df=771)로서 유의미($p<.01$ 수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의 t 값은 -1.37(df=682)로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로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향들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내적 정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 종교정향에 의한 종교적 자아정체성 차의 검증

Allport의 종교정향 (내재적) (외재적)	내재적 정향	외재적 정향	t 검증
	2.73(0.78) (n=930)	2.54(0.80) (n=517)	3.75(df=1025)***
Batson 등의 종교정향 (내적) (외적) (추구적)	외적 정향	내적 정향	t 검증
	2.57(0.77) (n=797)	2.78(0.82) (n=677)	-4.98(df=1393)***
	내적 정향	추구적 정향	t 검증
	2.78(0.82) (n=677)	2.61(0.73) (n=349)	2.79(df=771)**
	외적 정향	추구적 정향	t 검증
	2.57(0.77) (n=797)	2.61(0.73) (n=349)	-1.37(df=682)

** $p<.01$ *** $p<.001$. 각 척도들은 7점 척도이고, 각 정향의 숫자는 평균과 표준편차임.

이 주제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은 종교정향 측정과 자아정체성 상태 간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앞서 소개한 Markstrom-Adams와 Smith(1996)의 고등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종교정향 관계의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정향은 성취 상태와 관련이 있고(신앙적 헌신이 큰 사람은 내재적인 정향), 외재적 종교정향은 혼미 정체성 상태와 관련(신앙적 헌신이 부족

하고 위기가 탐색이 부족한 사람은 외재적 정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²⁰⁾ 그러나 그들은 신앙적 헌신과 위기의 측정을 위하여 내재적 외재적 종교정향 척도들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신앙적 헌신과 위기(특히) 개념을 확장하는 좋은 측정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Fulton(1997)은 내재적 정향 점수는 정체성 성취와 관련이 있고, 외재적 정향 점수는 유실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나타내었다.²¹⁾ 더구나, Batson의 추구적 정향은 유예 상태와 연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유예 상태와 같이 의심에 대한 탐색은 원래 추구적 정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최근 연구에서 추구적 정향에는 정체성 발달 상태보다 개인적 의미(meaning)가 더 효과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Klassen & McDonald, 2002).²²⁾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종교적 자아정체성과 앞의 모든 정향들 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검증 결과(표로서 제시하지 않음)는 다음과 같다. Allport의 내재적 외재적 정향들의 남녀 간에는 차이가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Batson의 종교정향들 간에 차이의 유의미성은 외적 정향과 내적 정향의 남자($t=-2.91$, $p<.001$, $df=633$), 여자($t=-4.02$, $p<.01$, $df=745$)에서 모두 유의하였지만, 내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의 남자($t=2.70$, $p<.01$, $df=492$)에서만 유의미한 차이의 결과를 보였고 여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 Allport의 종교정향 척도보다 Batson의 종교정향 척도가 성별과 관련하여 종교적 자아정체성에 더 강한 변별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영역 연구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헌신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차를 구별해 내려는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그러한 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종교영역의 몇몇 연구에서는 양성 모두가 정체성 발달과정이 별로 차이가 없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Archer, 1989).²³⁾

3. 신앙성숙에 의한 종교적 자아정체성 차의 검증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신앙성숙 정도에 따른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표 5>의 결과와 같이, t검증을 위하여 Benson 등이 개발한 신앙성숙 척도(FMS)의 하위 종교주제 세 가지 즉, 수평적 주제, 수직적 주제, 일반 주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독립변인 가운데 오직 수평적 주제와 수직적 주제 간의 종교적 자아정체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t값=-2.39$, $p<.01$, $df=153$). 이 결과에서

20) Markstrom-Adams, C., & Smith, M., 앞의 글, pp.247-261.

21) Fulton, A. S., 앞의 글, pp.1-11.

22) Klaassen, D. W., & McDonald, M. J., "Quest and Identity Development: Re-Examining Pathways for Existential 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2(3), 2002, pp.189-200.

23) Archer, S. L., "Gender Differences in Identity Development: Issues of Process, Domain and Timing", *Journal of Adolescence*, 12, 1989, pp.117-138.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수평적 주제와 수직적 주제의 신앙성숙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직적 주제를 지향하는 사람이 수평적 주제를 지향하는 사람보다 더 뚜렷한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수직적 주제와 일반 주제 간이나, 수평적 주제와 일반 주제 간의 검증에서는 차이의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신앙성숙에 의한 종교적 자아정체성 차의 검증

Benson 등의 신앙성숙 척도 (수직적 주제) (수평적 주제) (일반 주제)	수평적 주제	수직적 주제	t 검증
	2.37(0.87) (n=130)	2.71(0.77) (n=988)	-2.39(df=153)*
	수직적 주제	일반 주제	t 검증
	2.58(0.79) (n=556)	2.67(0.76) (n=223)	-1.94(df=416)
	수평적 주제	일반 주제	t 검증
	2.71(0.77) (n=181)	2.60(0.79) (n=233)	0.65(df=206)

* $p < .05$ 각 척도들은 7점 척도이고, 각 주제들의 숫자는 평균과 표준편차임.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Sanders(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신앙성숙과 정체성 상태들 간의 연속선상에서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임을 보였다. 그의 연구에서 수직적 주제의 경우에 정체성 성취와 유실 상태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신앙성숙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 주제의 경우에도 정체성 성취가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성숙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낮은 종교 자아정체성에서 낮은 종교 자아정체성까지 일관되게 신앙성숙 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⁴⁾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들의 종교와 자아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발달의 경향과 종교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Marcia는 Erikson의 자아정체성 이론을 확장하여, 네 가지 정체성 상태의 수준을 나타낸 정체성 상태 분류 모형을 탄생시켰다. 본 연구는 그 모형에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대체시켜 청년들의 신앙발달, 종교정향, 신앙성숙 등과의 상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척도 제작을 시도한 연구자는 Sanders이

24) Sanders, J. L., 앞의 글, pp.654-655.

었지만, 최근의 Hunsberger의 연구보다는 구체적이지 못하였다. 원래 Marcia는 종교적이 아닌 일반적 관념의 정체성을 위기와 헌신의 두 차원에서 조작함으로써 성취, 유예, 유실, 혼미 등의 네 가지 자아정체성 상태를 분류하였다. 여기에 Hunsberger는 종교적 영역에서의 네 가지 자아정체성 상태를 범주화하였다. 자아정체성 발달은 본래 자아성숙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고, 그 바탕도 종교의 내재적 정향내지는 종교적 신앙성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와 유사한 개념의 접근을 시도한 King(2003)은 최근 연구에서, 종교가 정체성 탐색과 헌신에 대해 각기 다른 변별적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고, 종교적 맥락은 자아초월에 이르기까지 정체성 감각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²⁵⁾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발달해감에 따라 네 가지 종교적 정체성 상태들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Allport의 이론과 같이, 종교적 자아정체성과 종교정향들 간의 상관성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종교적 신앙성숙 정도가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들과 상호관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 즉, 성취, 유예, 유실, 혼미 등의 네 가지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달하는 경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연령집단은 5집단으로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발달 경향은 네 가지의 상태 가운데 유예와 성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유실과 혼미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의 발달 비율을 보면 가장 낮은 연령 청년전기(18~20세)에서는 유실이 가장 높은 비율(40.4%)을 나타내었는데, 주로 부모의 권유대로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어온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종교와 자신의 종교를 구별하여 고민해보는 대안적 탐색의 위기 극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 유실 상태와 관련된 유사한 연구에서, 서구 사회와 비서구 사회의 전통 문화적 특징에 의한 구분으로 정체성 유실 상태를 설명한 Markus와 Kitayama(1991)의 주장이 잘 나타나 있다.²⁶⁾ 즉, 자아정체성(일반적 관념)의 유실 상태는 비서구 사회의 청소년들은 부모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여, 그들의 집단적 결정에 따르는 경향에 의한 정체성 상태라고 하였다. 그 다음의 네 개 집단에서는 유예가 가장 높은 비율로 청년후기까지 이어갔

25) King, P. E., "Religion and Identity: The Role of Ide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7, No. 3, 2003, pp.197-204.

26) Markus, H. R., & Kitayama, S.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1991, pp.224-253.

고, 성취의 비율도 동시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상승하는 추세이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유예에 관련된 척도 문항의 예는 “나에게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아직도 나의 신앙 정체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인데, 청년들이 신앙 문제를 넘어서서 자신 있게 스스로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찾았다고 응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Marcia는 정체성 상태 발달에 대한 정확한 연령을 밝히지 않았고, 그 원천 이론 학자인 Erikson도 18세 전후가 정체성 대 역할 혼미(identity vs role confusion)의 시기라는 정도만 밝혔다. 이들 이론의 주체인 일반 관념적 자아정체성 발달 연령에 있어서는 시대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더욱이,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그런 면에서 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소개한 Archer(1982)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등학교 20% 정도의 학생만이 정체감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결과에 의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청년전기(18~20세)집단의 13.4%가 성취를 이룬 결과와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Hunsberger 등(2001)의 연구에서 신앙적 헌신, 특히 신앙적 탐색의 측정을 개선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후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정체성 상태와 종교 간의 관련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다.²⁷⁾ 예컨대, 신앙적 헌신은 학생들이 성취와 유실 상태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고, 혼미와 유예 정체성일 때 더 약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신앙적 위기 극복은 유예 점수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고, 유실과 혼미에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에서 성취 상태에 이르는 발달이 종교정향들 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가정은 종교정향이 내재적일수록 성숙되고 신앙적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종교적 심리측정 척도가 Allport와 Batson의 종교정향 척도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두 학자의 척도 모두에서 내(재)적 정향과 외(재)적 정향 간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이 의미 있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 Batson의 제3의 하위 정향인 추구적 정향과 내적 정향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의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지지하고 있고,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일치되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앞서 소개한 Fulton(199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정향 점수는 정체성 성취와 관련이 있고, 외재적 정향 점수는 유실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나타내었다. Markstrom-Adams와 Smith(1996)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신앙적 헌신이 큰 사람은 내재적인 정향을 나타내었고 성취 상태와 관련이 있고, 신앙적 헌신이 부족하고 위거나 탐색이 부족한 사람은 외재적 정향을 나타내었고 혼미 정체성 상태와 관련

27) Hunsberger, B., Pratt, M., & Pancer, S. M., 앞의 글, pp.365-386.

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arkstrom(1999)는 후속 연구에서 종교정향에 대해 더 진전된 해석을 발견하였는데 내재적 정향은 신앙적 헌신에서 필수적 요소이고, 종교의 개인적 경험을 연계시켜서 ‘의미-부여 체제(meaning-endowing framework)’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또 외재적 정향을 종교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았고, “위로와 사회적 관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실리적 자기 본위(self-serving)의 동기부여로 특징짓는다는 연구문헌 내용들을 인용하였다.²⁸⁾

그리고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Batson의 외적 정향과 추구적 정향 간에는 차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구적 정향은 내적 정향과의 차별성이 확실하지만 외적 정향과는 그 차별성이 다소 모호한 관계에 놓여 있다. 앞서 소개한 Klassen과 McDonald(2002)은 청년들은 신앙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종교적 확신과 의심, 신앙과 신념, 헌신과 탐색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고 하였다. 그들은 종교심리학의 이 주제 연구는 추구의 구조에 맞추었고,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추구하고 정체성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Watson 등(1998)은 신앙 발달이나 인간발달의 광범한 이론에 추구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해왔고, 추구는 정체성 혼미 혹은 갈등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추구에 대해서는 미개발 차원의 연구 주제이고 생존경쟁에서 개인적 의미의 측면이다. 추구는 일상의 일에서 진정한 용기 있는 생활양식에서 볼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은 신앙성숙 정도와 청년들의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간의 상관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Benson의 신앙성숙 척도(FMS)의 수평적 주제, 수직적 주제, 일반 주제들을 각각의 관계들 간의 차이의 유의성에 대해 t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수평적 주제와 수직적 주제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세 번째 가설을 일부 지지한 이 결과는 수직적 주제를 지향하는 사람이 수평적 주제를 지향하는 사람보다 더 뚜렷한 종교적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수직적 주제와 일반 주제 간이나, 수평적 주제와 일반 주제 간의 검증에서는 차이의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소개한 Sanders(1998)의 연구에서도 수직적 주제 척도는 초월적 실재와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종교적 자아발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성취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때의 개인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성숙에 의하여 보다 더 이타적인 성격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평적 주제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

28) Markstrom, C. A., “Religious Involve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ce*, 22, 1999, pp.205-221.

29) Watson, P. J., Morris, R. J., Hood, R. W., Milliron, J. T., & Stutz, N. L., “Religious Orientation, Identity, and the Quest for Meaning in Ethics within an Ideological Surround”,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8, 1998, pp.149-164.

람은 친사회적 정서를 나타내고 자비와 정의의 행동을 통하여 인본주의 입장에서 발휘하는 봉사를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Burris와 Tarpley(1998)도 미국사회의 신앙성숙 척도 개발을 위하여 신앙성숙 정의와 신앙성숙 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³⁰⁾ 전통 기독교의 주류에서 이해되어 왔듯이 신앙성숙 정의는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힘차고 생활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특성에 대한 지각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정의에 걸맞은 신앙성숙의 구성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 종교의 적응적인 발달 측면(성숙과 건강)과 부적응적인 발달 측면(미성숙과 비 건강)을 구분하기 위해 신념의 범위, 가치, 태도, 신앙의 실제적 표현을 나타내는 행동 등을 측정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종교적 자아 발달 단계의 맥락에서 종교적 신앙성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 상태가 종교연구와 관련이 있고, 특별히 청년기의 종교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가 종교적 자아정체성 상태를 가정적으로 상정한 것은 애초에 Erikson과 Marcia는 청소년 자아정체성 성취 상태에는 직업과 같은 관념뿐만 아니라 종교와 같은 신념(신앙인의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관념적 자아정체성과 종교적 자아정체성이 거의 유사한 패러다임을 지닐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를 가진 신앙인의 경우, 종교의 보수적 권위주의와 같은 변인은 청년의 종교발달과 일반 관념적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보수적 권위주의는 높은 수준의 신앙심과 성취 정체성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적 의문에 대한 해결은 청소년이나 청년의 안정적 정체성 발달에서 잠재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발달시켜 종교적인 문제나 궁극적 의문 해결 방법에 접근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관념적 정체성 상태의 측정 내면에는 특히, 종교인의 경우는 종교적 영역이 일부분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자아정체성은 세속 생활의 영역(예컨대, 정치적인 것, 직업) 정체성보다 발달이 늦고 뒤쳐지는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적 자아정체성 발달 연구에 새로운 안목이나 다른 종교의 종교인까지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0) Burris, C. T., & Tarpley, W. R., "Religion as Being: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Immanence Sca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1998, pp.55-79.

참고문헌

- 김동기. 『종교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형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제30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3. 봄.
- . 「천주교인의 집단 성경공부 참여에 의한 신앙성숙과 종교적 태도변화에 대한 고찰」.
『종교교육연구』. 제2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6.
-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0.
- 이신동 · 최병연 · 고영남. 『최신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1.
- Archer, S. L. “The Lower Age Boundaries of Ident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3(6). 1982.
- . “Gender Differences in Identity Development: Issues of Process, Domain and Timing”. *Journal of Adolescence*, 12. 1989.
- Batson, C. D., Schoenrade, P., & Ventis, W. L. *Religion and the Individual: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Benson, P. L., Donahue, M. J., & Erickson, J. A. “The Faith Maturity Scale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Empirical Validation”. *Research in the Social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 1993.
- Bilsker, D., & Marcia, J. E. “Adaptive Regression and Ego Identity”. *Journal of Adolescence*, 14(1). 1991.
- Burris, C. T., & Tarpley, W. R. “Religion as Being: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Immanence Sca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2. 1998.
- Fadjukoff, p., Kokko, K., & Pulkkinen, L. “Implications of Timing of Entering Adulthood for Identity Achieve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2(5). 2007.
- Fulton, A. S. “Identity Status,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Vol. 26, No. 1. 1997.
- Gorsuch, R. L. “Psychology of Relig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9. 1988.
- Hood, R. W., Jr., Spilka, B., Hunsberger, B., & Gorsuch, R. L.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1996.
- Hood, Jr. R. W., Hill, P. C., & Spilka, B.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 Empirical Approach,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9.
- Hunsberger, B., Pratt, M., & Pancer, S. M.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Religious Exploration and Commitment”.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1(4). 2001.
- Jones, R. M., Akers, J. F., & White, J. M. “Revise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19. 1994.
- King, P. E. “Religion and Identity: The Role of Ide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Vol. 7, No. 3. 2003.

- Klaassen, D. W., & McDonald, M. J. "Quest and Identity Development: Re-Examining Pathways for Existential Search".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2(3). 2002.
- Markstrom, C. A. "Religious Involve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Adolescence*, 22. 1999.
- Markstrom-Adams, C., Hofstra, G., & Dougher, L. "The Ego-Virtue of Fidelity: A Case for the Study of Relig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994.
- Markstrom-Adams, C., & Smith, M. "Identity Formation and Religious Orient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ournal of Adolescence*, 19. 1996.
- Markus, H. R., & Kitayama, S.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1991.
- Sanders, J. L. "Religious Ego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Faith Matur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6). 1998.
- Watson, P. J., Morris, R. J., Hood, R. W., Milliron, J. T., & Stutz, N. L. "Religious Orientation, Identity, and the Quest for Meaning in Ethics within an Ideological Surround".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8. 1998.

원고접수 : 2011년 11월 15일 1차 심사 : 12월 6일 게재승인일 : 12월 18일

연구자소개 : 김동기

- ① 전공 : 사회심리학, 종교사회심리학 / 소속 :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 ② 관심영역 : 종교심리학, 종교행동, 종교사회심리학
 - ③ 주요논저 : 『종교심리학』, 「가톨릭 청년의 종교정향, 영성, 신앙 태도 그리고 생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회심과정의 태도와 태도변화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검증」, 「천주교인의 집단 성경공부 참여에 의한 신앙성숙과 종교적 태도 변화에 대한 고찰」, 「가톨릭 신자의 성격특성과 종교행동을 통한 하느님의 이미지(IOG) 분석」
 - ④ E-mail : ghdgk@kangnam.ac.kr
-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Religiosity According to Marcia's Identity Model in Catholic Youths

Kim, Donggi

Kangnam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Id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Marcia's Identity Model is examined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First, during adolescence, with increasing age and level of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there is an increase in the level of Moratorium and Achievement, whil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ecrease in Diffusion and Foreclosure. Second, in relation to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Quest Religious Orientation. Third, in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for the Mature Faith Scale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orizontal Themes and Vertical Themes.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study were 1,872 Catholic youth, who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The measurement instruments included the Religious Identity Questionnaire, Religious Orientation Scale, Mature Faith Scales, among others. Overal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tudy support the three hypotheses. First, Marcia's Identity Model was replaced with Religious Identity, and among the four identity measures, there was a tendency for Moratorium and Achievement to increase with age, while on the other hand Foreclosure and Diffusion decreased with age. Second, with regards to Allport's Religious Orientatio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difference with Religious Identity than Extrinsic Orientation. In addition, Batson's Intrinsic Orient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Extrinsic Orientation for Religious Identity Development.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Mature Faith. In other words, individuals with Horizontal-Theme orientation tendencies have clearer Religious Self-Identity than individuals with Vertical-Theme orientation.

Key words: Marcia's Classification of Identity Status, Erikson's Identity Development, Religious Identity, Religious Orientations Scales, Mature Faith Scales